문순태 칼럼

물 속에 갇힌 희망 "미안하다"

"4월의 꽃보다 더 아름답고/ 새벽 이슬보다 더 순결한/ 대한민국의 아까운 새끼들/ 움직이지 말라는 말만 믿은/ 착하고 순진한 아들딸들이여/ 끝내는 어른들 말만 믿었다가/ 별도 반짝이지 않는/ 깊은 어둠속에 갇힌 채/ 버림받은 미아가 되었구나/ 물속에 별이 된 영혼들이여/ 그대들의 빛나는 꿈은 눈물이 되고/ 사랑은 그리움이 되었구나/ 손 붙잡아 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대들의 애타는 울부짖음에도/ 어른들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마지막 순간, 암흑의 절망 속에서 이들은 얼마나 춥고 외롭고 두려웠을까. 목이 찢어져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으나 끝내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없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랑하는 가족들은 또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어떻게 해 엄마." "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랑해요." "얘들아, 내가 잘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부를 전하는 것뿐이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생각하면 헉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치욕과 안타까움과 분노로 몸이 떨린다. "친구 생각에 눈만 뜨면 눈물이 나온다"는 구조된 단원고 학생의 말이 가슴을 친다. 팽목항에 비를 맞고 앉아서, 배가 가라앉은 바다만 무연히 바라보는 어머니와, 마이크를 입에 대고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불러대는 아버지의 모습도 눈물겹다.

선체에서 시신을 수습할 때마다 오열하는 가족들을 보면 미안하다는 마음이 앞선다. 그리고 부끄럽다. 해외 언론들마다 후진국형 참사라느니, 살릴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 30분을 허비했다느니, 초기 구조에 참으로 허술하고 미숙한 대응이었다느니, 하는 지적들이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아, 이 치욕스러움. 세월호 사고야 말로 예상된 인재가 아닌가. IT세계1위니 조선강국이니, 세계경제 10위권이니, 선진국 진입이니 하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댔던 것조차 부끄럽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안 훼리호 사고 등 많은 대형사고의 그 쓰디쓴 경험들은 다 잊었단 말인가.

경주 리조트 지붕 붕괴사고를 겪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반복되는 안전불감증이란 말인가. 국민들은 지금 패닉 상태로 집단적 우울증, 집단적 슬픔에 빠져 있다. 이번 사고로 국격 추락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초기 대응만 잘 했어도 훨씬 많은 인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움과 함께 울화가 치민다. 사고 발생 50분까지만 해도 배가 20도 정도 기울어 승객들 탈출이 가능했을 텐데, "선실이 안전하니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만 되풀이됐고 먼저 탈출한 선장이 병원에서 물에 젖은 돈을 말리고 있었다니, 참으로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선장이 상황 판단을 해 즉각 비상채널로 구조요청을 하고, 구명정을 풀어 승객들 대피부터 서둘렀어야만 했다. 그런데 44개의 구명정 중 겨우 2개만 풀렸고, 나머지는 쇠줄에 꽁꽁 묶여 있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는 구체적인 구조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고 대책본부의 지휘체계도 허술했다. 실종자와 구조자 숫자를 여덟 번이나 번복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한 대책본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더딘 구조작업에 실망한 가족들의 희망은 분노로 바뀌고 말았다. 이것이 정부가 큰소리친 안전한 사회인가.

오죽했으면 괴담이 나돌고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겠다"고 했겠는가. 닷새 만에야 선체에 진입했는가 하면, 희망의 불씨인 공기 주입도 나흘 만에야 이루어졌다. 조선강국이라더니 수중 무인 탐사기 한 대도 없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세월호 참사에서 이준석 선장 등 비겁한 사람도 있었지만 오래 기억해야할 영웅도 탄생했다. 여학생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끝까지 구조에 힘쓰다 숨진 매점 직원 박지영 씨와 최혜영 교사 등 12명의 단원고 선생님들은 끝까지 학생들을 구조하다 실종되고 말았다. 구조된 강민규 교감은 "하늘 나라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있겠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가 하면 선장을 비롯 항해사 기관사 등 선박직 선원은 전원 생존했다. 학생 25%, 교사 20%라는 구조 퍼센티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마음을 다독이고 상처를 다스려야한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이번 사고는 우리에게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의 이기적 삶의 비굴함과, 자신을 희생한 이타적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촛불을 켜는 마음으로, 기적을 믿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일이다.

〈소설가〉

"내 자식 죽어가는데 살아 뭐해…" 부모들 피맺힌 울부짖음

가족들, 당국 부실한 대처 비판 "청와대 가겠다"

경찰-대표단 대치…"길 터 달라" 통곡 5명 실신

'(시신이라도) 자식 얼굴 알아볼 수 있을 때(고향으로) 데려가게 해달라'는 부모들의 '피맺힌' 울부짖음을 들어주지 못하는 걸까.

자식을 기다리던 부모들은 20일 새벽 탈진한 몸을 이끌고 진도실내체육관을 나섰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흔들리지 않던, 절박한 희망은 생존자 대신, 하나둘 떠오르는 시신을 보면서 분노했다.

'살아있을 거야' 라고 간절히 믿었던 가족이 차디찬 바다에서 시신으로 떠오르면서 실내체육관은 비명에 가까운 울음으로 뒤덮였다. 시신 인상착의와 옷차림새 등이 적힌 상황 보고서를 꼼꼼히 챙기면서 묵묵히 고개를 숙이는가 하면,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하는 부모들이 잇따랐다. 부모들은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살아서 뭐하겠느냐. 나도 따라 죽을 것"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가족들은 분노했고 전날 당국의 부실한 대처를 비판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청와대로 가겠다며 일어섰다. 더딘 구조작업, 믿을 수 없는 정부 대응을 성토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지휘해 달라"며 청와대로 향하는 부모들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대표단 150명은 이날 새벽 6시40분께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11.5㎞가량 떨어진 진도군내북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진출했다. 경찰은 맨 몸으로 2차선 도로를 막고 제지했다. "청와대로 갈 수 있게 길을 터 달라"고 빌던 실종자 부모 5명이 실신했다.

한 가족은 경찰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렸다. "제발 보내 주세요. 한 번만 살려 달라"며 통곡했다.

딸 조은화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45)는 "부모가 자식 얼굴을 못 알아보면 되겠냐", "제발 시신이라도 가져가도 좋으니, 내 새끼 얼굴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 때 데려가게 해달라"고 오열했다.

대표단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와 면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진도실내체육관으로 되돌아갔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모여있는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가족의 생환을 애타게 기다리던 한 여성이 실신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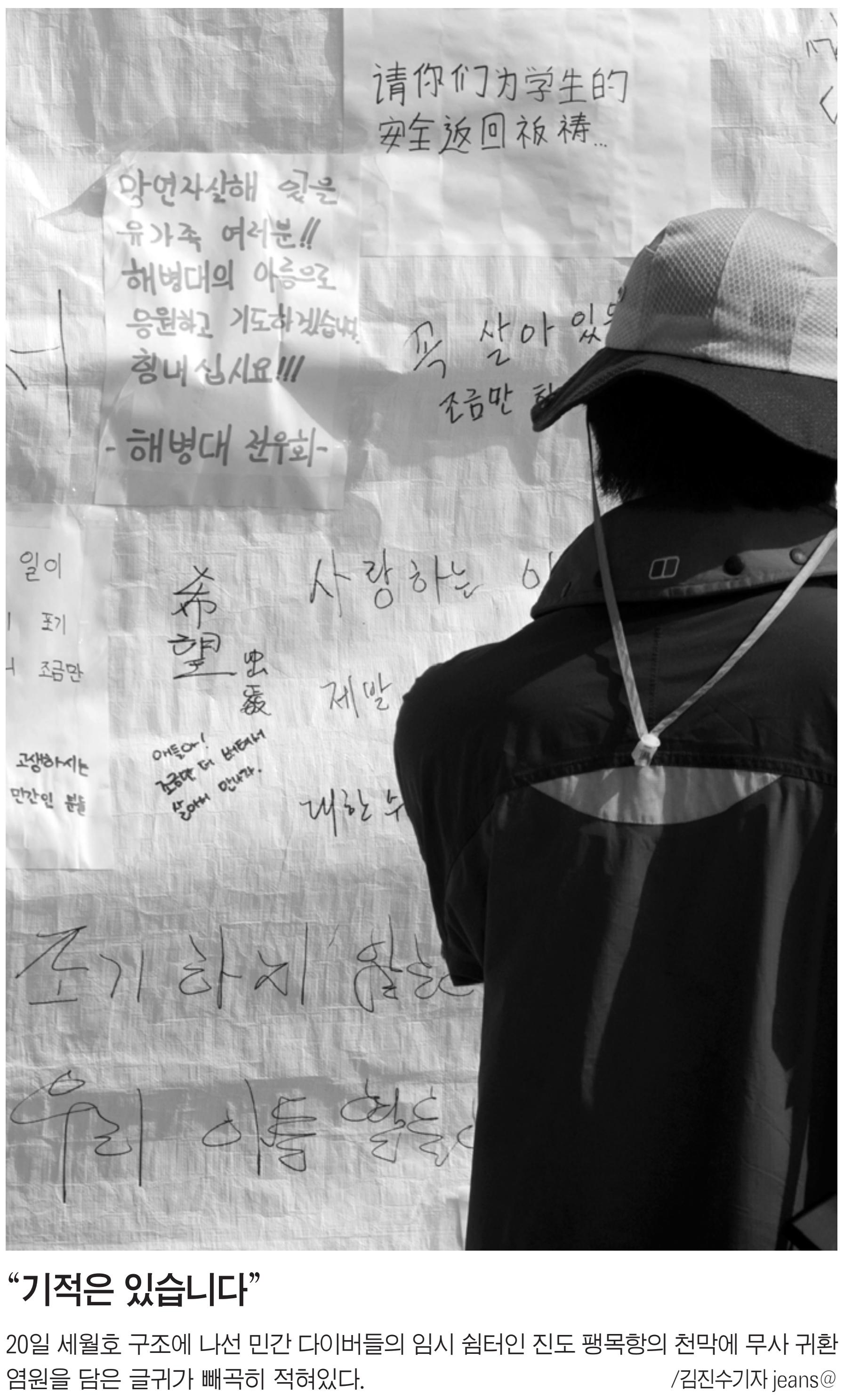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사고 해역에 563명의 잠수사를 투입, 본격적인 수색작업에 나섰다.

대책본부는 특히 다양한 구조 방법의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인양 및 선체에 구멍을 뚫거나 절단하는 등의 방식은 자칫 생존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현재의 선내 진입 방식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함정 204척과 항공기 34대를 이용, 선체 주위 해역 수색도 진행했다. 현재 사고 해역에선 잠수사들이 선실에 진입, 생존자 구조 등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탑승자는 모두 476명으로, 이중 사망자 58명·구조자 174명·실종자 244명이다. 전날 밤 8시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인양된 시신 수는 모두 21명이다.

/이종행기자 golee@·임준표 수습기자 lotus@



"기적은 있습니다"

20일 세월호 구조에 나선 민간 다이버들의 임시 쉼터인 진도 팽목항의 천막에 무사 귀환 염원을 담은 글귀가 빼곡히 적혀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새벽 4시 진도체육관 가보니

"준호야 어딨니" "늦기전에 시신이라도…"

비통·오열…잠들지 못하는 체육관의 밤

'세월호 침몰' 닷새째인 20일 새벽 4시. 1938.5㎡ 너비의 진도실내체육관엔 잠들지 못한 실종자 부모의 애끊는 흐느낌이 멈추질 않았다.

700명의 학부모들은 단상(壇上)에 설치된 세로 3m·가로 4m 크기의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혹여라도 자식의 생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놓치지 않을까 잠들지 못하고 충혈된 눈을 다시 부릅뜨고 있었다.

TV에서 이날 시신 6구를 인양했다는 소식이 되풀이해서 보도되자, 일부 학부모들은 "TV를 꺼라. 이게 무슨 수색 작업이느냐"라며 극도의 예민함을 보였다.

아예 TV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듣지 않으려고 잠을 청하는 이도 있었다. 한 실종자 학생의 아버지(43)는 잠을 청하면서도 꿈속에서나마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준호야. 아빠야, 어디 있어"라며 아들의 이름을 되뇌었다.

일부 부모들은 차가운 해저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자식 생각에 또 다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즈막히 흐느꼈다.

한 쪽에선 울다 지쳐 실신한 학부모들로 인해 링거 주사를 맞는 1인용 침상 10개가 금방 동이 났다. 한 학부모는 "아들은 죽어가는데, 내가 이런 것 맞아서 뭐해"라며 링거 주사를 뽑으려 하자,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말렸다.

학부모들은 몸살·근육통·호흡기 이상을 호소, 임시 약국을 제 집 드나들 듯 했다. 하루 평균 600~700명이 감기약·파스 등을 가져간다는 게 임시 약국 담당자인 대한약사회 서울지부 김정란(59)씨의 설명이다.

동 틀 무렵인 이날 새벽 5시50분께. 일부 학부모들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마련한 임시 상황실을 수시로 오가며 자식이 입고 간 옷차림과 인상착의에 대해 꼼꼼히 설명하고 있었다. 시간을 더 지체했다간 시신이 부패되면서 자식의 얼굴마저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표단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지만 이젠 생사를 넘어 주검이라도 빨리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백희준수습기자 bhj@

현장 이모저모

안산시민 33만이 호남출신

○…경기도 안산시 호남향우회 10명은 20일 진도실내체육관을 방문,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한 뒤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호남향우회는 매일 10명씩 교대 근무를 하면서 식사 및 모포 나르기, 체육관 청소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호남향우회가 실종자 가족들을 찾은 이유는 사고 해역이 진도로 호남지역인데다, 단원고 학생들과 인연 때문이다.

호남향우회원 중 일부는 로타리클럽 3750지구 회원인데, 3750지구는 단원고 학생들로 구성된 차세대 봉사 동아리인 '인터렉트'를 지원하고 있다.

'인터렉트' 회원 60명 중 18명이 이번 사고로 실종(11명)되거나 구조(6명)·사망(1명)했다.

김영일(60·사진) 호남향우회장은 "이번에 권오천군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권군의 아버지도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면서 "권군의 아버지와 잘 아는 사이다.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안타까울 뿐"이라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안산엔 시민 77만 명 중 33만 명이 호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희준수습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수학여행 등 일제 중단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들이 수학여행·소풍·체육대회 등을 일제히 중단했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형태의 각종 체험학습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일 현장학습이나 수련활동도 가급적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교장이나 교감이 인솔해 사전 안전교육과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수학여행 계약을 이미 체결해 위약금 문제를 겪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해결방안을 요청하고, 교육청 관계자가 관련 항공사를 직접 찾아가 위약금 면제 협조를 요청했다.

/박정욱기자 jwpark@·백희준수습기자 bhj@

자살 단원고 교감 시신 안치

○…수학여행길에서 여객선 침몰 참사를 당한 경기도 안산 단원고 교감 강모(5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오후 4시께 진도군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 소나무에 강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강씨의 지갑에서는 편지지에 손으로 쓴 유서가 발견됐다.

강씨는 유서에서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 내가 수학여행을 추진했다. 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 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교사와 함께 인솔 단장으로 수학여행길에 오른 강씨는 선박에서 구조된 뒤 자신만 구조됐다며 자책해왔다고 주변 교사들은 전했다.

강 교감의 시신은 경기도 안산 제일장례식장에 안치됐다.